



연구논문

해방 후 최남선의 당대 인식과 계몽의 논리

류충희

후쿠오카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준교수, 한일 비교사상사·비교문학 전공
ryuch@fukuoka-u.ac.jp

I. 머리말

- II. 해방 후 최남선의 역사 교과서 내용과 역사를 통한 계몽
- III. 한국 사회의 비도덕성과 새로운 민주 대한의 성립 가능성
- IV. 맷음말

I. 머리말

한국의 근대사를 경험한 최남선은 해방 후의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았을까. 이 글에서는 최남선의 당시 한국 사회에 대한 시선과 사상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 후 최남선에 대한 연구는 개화기와 식민지 시기의 연구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해방 후 최남선의 저술 활동과 역사서 기술의 문제를 다룬 연구로 이영화, 류시현, 류충희의 연구가 있다. 이영화는 식민지 시기에 간행된 최남선의 통사 「조선역사강화」(1930), 『고사통(故事通)』(1943)과 해방 후 간행된 역사서 『국민조선역사』(1947, 1945년 탈고)의 구성을 비교 분석하여, 해방 후 최남선의 독립운동사 논의와 한일 관계 재정립, 대외팽창적인 관점 등, 『국민조선역사』의 역사 기술의 특징을 논했다.¹ 류시현은 해방 후 최남선의 역사 기술에서 한일 관계의 재정립 및 남한 중심의 역사 기술, 독립 운동에 대한 기술 등을 특징으로 지적하며,² 『조선상식문답』(1947), 『조선상식문답속편』(1947)과 『천만인의 상식』(1948), 『세계역사요령』(1949) 등을 분석하여, 한국사 및 세계사 속의 조선/한국(학)의 의미를 일반에게 대중화하는 작업으로 해방 후 최남선의 활동 및 중등 역사 교과서 및 세계사 개설서 작업을 검토했다.³ 류충희는 식민지 시기부터 해방 직후의 최남선의 조선/한국

* 이 글은 2024년 9월 13일에 개최된 성균관대학교 국제학술대회 '냉전문화 형성기 한국문화 문화사의 재인식'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먼저 좋은 학문적 교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성균관대학교 관계자 분들, 그리고 여러 의견과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JSPS KAKENHI Grant Number JP23K20088.

1 이영화, 『최남선의 역사학』(서울: 경인문화사, 2003).

2 류시현, 「해방 후 최남선의 활동과 그에 관한 '기억'」, 『한국사학보』 27(2007); 류시현, 『최남선 연구』(서울: 역사비평사, 2009); 류시현, 『최남선 평전』(서울: 한겨례출판, 2011).

3 류시현,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최남선의 '조선 상식' 정리와 '한국학'의 대중화」, 『대동문

통사의 고대사 기술을 검토하여, 그가 주장해 온 불함(不咸)문화론이 해방 후 그의 역사 기술, 특히 고대사 기술에 어떻게 반영되고 변용되었는지를 살폈다.⁴ 이상의 선행연구는 최남선의 역사서와 같은 개별 저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최남선의 해방 후 활동과 사상을 이해하는 개별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 대한 최남선의 관점, 특히 대한민국 건국과 한국전쟁 후인 1950년대의 활동 및 사상의 양상을 충분히 보여 주지는 못했다.

이 글에서는 해방 후 한국 사회 그리고 역사를 통한 계몽이라는 문제에 주목하여 최남선이 만년(晚年)에 행했던 저술 활동과 그의 사상을 검토한다. 먼저 최남선의 해방 후 삶을 정리해 보자.⁵

1945년 8월 해방 이후 최남선은 동명사 등을 통해 다수의 역사서⁶를 발행한다. 1945년 12월에 저술을 마친 『쉽고 빠른 조선역사』(1946)를 시작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으로 1949년 2월에 검거된 이후 『세계역사요령』까지 다수의 역사서를 내놓는다. 최남선의 역사서는 당시 국정교과서가 없었던 해방 공간에서 국사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1948년 9월에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고 1948년 10월 각도학무국장회의에서 최남선의 역사서 7종과 이광수

화연구』 114(2021); 류시현, 「해방 후 최남선의 중등 역사 교과서의 집필과 세계사 인식: 『세계역사요령』(1949)을 중심으로」, 『공존의 인간학』 9(2023).

4 류충희, 「해방 전후 최남선의 역사 인식과 불함문화론」, 『코기토』 103(2024).

5 최남선의 해방 후 삶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 신문』, 『자유신문』 등의 신문 기사를 통해 정리했다.

6 이 시기 최남선의 역사서는 교과서로 사용되어 '역사 교과서'로 명명할 수 있다. 특히 교수 요목기(1946~1954) 후반과 제1차 교육과정(1954~1963)에 나온 최남선의 역사서는 문교부의 검정을 받은 중등 및 고등학교 교육을 위한 사회생활과 교과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최남선의 역사 관련 저서는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역사 개설서와 역사 입문서로서의 역할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기 때문에, 제도권의 학교 교육을 위한 교과서로서의 기능만 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역사 개설서, 역사 입문서, 역사 교과서를 포괄하는 의미로 '역사서'라 칭하고자 한다.

의 『문장독본』의 사용이 금지된다.⁷ 이듬해인 1949년 2월 이광수와 함께 최남선이 검거되고, 3월 자신의 반민족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의 의견을 적은 「자열서(自列書)」가 공개된다.⁸ 4월에 지병으로 인해 보석되고, 5월 처음으로 반민족행위로 재판을 받는다. 이듬해인 1950년 5월에 다시 재판을 받지만, 같은 해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재판은 유야무야된다.

최남선은 피난을 하지 못하고 서울의 우이동 백운대에서 숨어서 지냈다. 한국전쟁은 최남선의 가족사에 큰 상흔을 남겼다.⁹ 인천상륙작전 전 최남선이 인민군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은 당시 서울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맡은 셋째 아들 최한검의 비호에 의한 것 같다. 최한검은 인천상륙작전 후 인민군의 후퇴와 함께 북으로 가게 된다. 경성제국대학교 의대를 나온 장남 최한인은 의용군으로 징집되었고, 이후 한국전쟁 중인 1952년에 병사하게 된다. 최남선은 1951년 1월의 1·4 후퇴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갔고, 같은 해 6월에 다시 서울로 돌아온다. 그때 전쟁으로 이제까지 모아두었던 17만여 권의 서적이 소실되어 버렸다.¹⁰

한국전쟁 기간 중 최남선은 다시금 사회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1952년 6월 정책위원회 위원(총 45명)으로 선정된다. 한국전쟁이 휴전에 들어가는 1953년 7월에는 경기도지(京畿道誌) 편찬위원회의 위원(총 8명)으로 선정되고, 11월에는 강화도 사적 조사에 참여한다. 1954년 1월에는 YMCA 시국강

7 「교과서와 풍기취체 등 학제최후결정 昨日 중등교장회를 개최」, 《조선일보》, 1948년 10월 12일. 교과서 사용이 금지된 최남선의 저작은 『중등국사』, 『조선본위 중등동양사』, 『동양 본위 중등서양사』, 『조선역사지도』, 『성인교육 국사독본』, 『쉽고 빠른 조선역사』, 『국민조선역사』이다.

8 최남선, 「국조모독설은 非本意: 自列書」, 《자유신문》, 1949년 3월 9~10일.

9 한국전쟁 당시 최남선의 가족사에 관한 내용은 장순인 최학주의 증언에 기반한 것이다. 최보식, 「‘육당 최남선’의 장순 최학주씨」, 《조선일보》, 2015년 5월 25일.

10 최남선, 「閑談」, 《새벽》, 1954년 12월호, 41쪽.

연회 신년강좌에서 「한국과 세계」라는 제목으로 강연한다. 전시군인연합대학의 교수로도 위촉된다. 같은 해 5월에는 서울시사 편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된다. 1955년 1월에는 진단학회가 편찬하는 『한국사대계』의 집필자로 일원으로 선정되고, 제7회 고등고시위원으로 위촉된다. 같은 해 5월에는 애국가작사자 조사위원회(문교부)의 위원으로 선정된다. 6월에는 자유문학자협회 명예회원으로 선정되고, 최현배와 함께 학술원상(인문과학부)을 수상하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 11월 가톨릭으로 개종한다. 최남선은 한국전쟁기부터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여러 문장을 발표하면서 국사교과서 『우리나라 역사』(1952)와 『고등국사』(1957)를 편찬하여 발행했다.

이후 지병으로 사회활동을 삼가고 투병하던 중 1957년 10월 10일에 서울시 종로구 묘동 자택에서 향년 68세로 별세하게 된다. 10월 14일 명동성당에서 고별 미사가 거행된 후, 양주군 노해면에 안장되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최남선이 해방 후에 작성한 역사서의 서문과 총론을 통해, 기술 의도에 주목하여 그의 역사를 통한 계몽의 문제를 살핀다. 해방 후 신조선/한국의 조선/한국인이 조선/한국의 역사를 배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최남선의 역사를 통한 계몽의 논리를 통해 답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발표한 글을 통해서 최남선의 당대 인식과 계몽의 논리를 제시한다. 최남선의 눈에 비친 해방 후의 한국 사회는 어떠했는지, 그의 당시 한국 사회에 대한 시선과 사상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해방 후 최남선의 역사 교과서 내용과 역사를 통한 계몽

1. 신조선의 국민 교양으로서의 역사: 해방 직후~한국전쟁 전

최남선은 해방된 직후부터 주로 동명사를 통해 역사서를 발행한다. 해방 후 가장 먼저 1946년 1월에 『쉽고 빠른 조선역사』¹¹가 나온다. 뒤이어 1946년 2월에 『신판 조선역사』와 『조선독립운동소사』가 간행된다.

이 시기에 간행된 최남선의 역사서는 당시 국민의 교양 혹은 교육의 장에서 사용할 교양서로 만들어졌다. 『쉽고 빠른 조선역사』는 기본적으로 순국문으로 작성되어 있다. “국문이나 깨친 정도의 남녀 대중이 써듬써듬 보아서도 우리 사회, 문화의 발달하야 나온 대강을 조리잇시 짐작하게”¹² 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일반 가정과 짜른 시간에 쑤내는 강습회와 특수한 사정의 학교”¹³에서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가정교육과 일반 강습 및 학교에서의 사용을 염두에 두었음을 밝혔다. 이 역사서에 대해 최남선은 “국민으로의 력사지식을 가졌다하기에 크게 부족함이 업”¹⁴라고 평가한다.

『쉽고 빠른 조선역사』의 마지막 장인 「그리운 옛땅」에는 고조선의 영토였던 간도 및 만주 지역을 수복해야 한다는 식민지 시기부터 주장해 온 불합문

11 최남선, 『쉽고 빠른 조선역사』(서울: 동명사, 1946a)의 서문에 따르면, 1945년 12월 25일에 집필을 끝냈다고 한다.

12 「서문」, 위의 책, 1쪽. 최남선의 역사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당시 한글 표기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한자로 병기하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한자를 노출하고, 옛한글도 그대로 남겨 원문의 느낌을 살렸다. 서명 혹은 책의 장, 절 등은 현대어로 고쳐 썼다. 역사서를 제외한 최남선의 책이나 글 및 당시 기사 등을 인용할 때 원문이 국한문혼용체인 경우 인용자가 필요한 부분만 한자를 병기했다. 그리고 글을 인용할 경우 맞춤법은 원문을 따르나 구두점 및 띄어쓰기는 인용자가 정리하여 적었다.

13 최남선, 앞의 책(1946a), 2쪽.

14 위의 책, 1쪽.

표1-해방 후 최남선의 역사서 (1): 해방 직후~한국전쟁 전

제목	출판사	출판 연도
『쉽고 빠른 조선역사』	동명사	1946.1
『신판 조선역사』	동명사	1946.2
『조선독립운동소사』	동명사	1946.2
『(성인교육) 국사독본』	동명사	1947
『국민조선역사』 ¹⁾	동명사	1947.1
『중등국사』	동명사	1947.8
『조선본위 중등동양사』	동명사	1947
『조선역사지도』	동명사	1947
『동양본위 중등서양사』	동명사	1948.9
『세계역사요령』	국문사	1949.12

주: 1) 1955년에 동국문화사에서 『우리나라 역사』로 다시 발행됨

화론을 염두에 둔 최남선의 주장이 엿보인다.¹⁵ 여기서 최남선이 말하는 북진은 한반도를 넘어서 불함문화권의 한 지역이자 조선의 옛 영토를 회복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이후 그의 역사서에서 보이는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북진통일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신판 조선역사』는 식민지 시기 최남선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는 역사서이다. 《동아일보》에 1930년 1월 12일자부터 3월 15일자까지 실린 「조선역사 강화」를 정리하여 단행본으로 만든 것이다. 『신판 조선역사』에는 두 가지 서문이 존재한다. 하나는 해방 후에 작성된 「조선역사신판서(敍)」이고 또 하나는 식민지 시기에 작성된 「소서(小敍)」이다.

「조선역사신판서」에서는 이 책을 출판하게 된 연유를 먼저 설명한다. 최남

15 류충희, 앞의 글(2024), 56~57쪽.

선은 “解放된 朝鮮에는 맛당히 解放된 國史 잊을것이라”¹⁶고 하며, 자신이 예전에 썼던 「조선역사강화」를 정리하여 해방 후의 시점에 내는 것을 주저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해방 후 국사 관련 서적이 출판 사정의 어려움과 국사의 필요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독립운동의 경과」를 넣어 새롭게 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소서」에서는 식민지 시기였던 1930년 당시 최남선의 역사 인식을 엿볼 수 있다.

一國의 歷史는 그 民族, 社會, 文化的 發展 成立한 來歷을 가장 端的하게 要領잇사, 因果의으로 表現한 者이라야 할 것이다. 各個의 事實에 正當한 地位를 줘서 그것의 整齊한 連鎖가 곳 그 國家, 民衆, 生活, 文化的 展開相이라야 할 것이다.¹⁷

한 나라의 역사는 민족, 사회, 문화의 양상과 국가, 민족, 생활, 문화를 잘 정리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식민지 시기 최남선의 역사 인식은 민족, 국가, 문화 등과 결부되는 사실의 양상을 설명한다는 식의 추상적인 설명에 그친다. 이러한 최남선의 민족, 국가, 문화 등을 키워드로 삼는 역사 인식은 해방 후 조금씩 구체화되고 개념화된다.

『조선독립운동소사』는 국한문혼용체로 작성되었다. 국문으로 평이하게 작성된 『쉽고 빠른 조선역사』의 문체와는 다르다. 한자 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이다. 「서언(敍言)」에서 최남선은 조선의 독립운동 사의 그 시작과 전개 및 원인을 알고자 하는 것은 “國民의 常情”¹⁸이라고 한

16 최남선, 「조선역사신판서」, 『신판 조선역사』(서울: 동명사, 1946b), 1쪽.

17 「소서」, 위의 책, 1쪽.

18 최남선, 「서언」, 『조선독립운동소사』(서울: 동명사, 1946c), 1쪽.

다. 그런 이유로 독립운동사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어 당시의 사람들에게 조선의 독립운동사에서 배울 점을 제시한다.

民族運動에 있어서 團合이 어찌 켜 福이오, 分裂이 어찌 켜 祸임을 足히 이에 驥하며, 一民族의 運動이 싸로 있는 것아니라 실상 全世界의 機運에 달려 있음을 足히 徵할지니, 이 篇을 손에 드는 이는 이 點에 세 번 致意함이 可할 것이다.¹⁹

최남선은 민족 운동에서의 “단합”의 필요성과 “분열”的 위험성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한 민족의 민족운동은 “전 세계의 기운”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조선이라는 특수가 인류라는 보편과 관련된다는 인식이다. ‘단합/분열’, ‘조선/세계(인류)’라는 개념의 조합은 해방 후 그의 역사 기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1947년 『(성인교육) 국사독본』(이하 『국사독본』)에서 이 개념이 구체화되어 제시된다. 『국사독본』에 대한 광고에는 “純國文, 新綴字橫書, 成人教育 上의 絶對要書임은 무론이오, 初等學校·一般家庭의 讀本으로 適用하기에도 맞당하다”²⁰라고 하여, 초등학교 수준의 내용으로 일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역사 개설서로 선전한다. 이 책의 서론에 해당하는 「국사는 왜 배우는가」에서 최남선은 역사, 나아가 자기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에 관해 설명한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데는 경험이 매우 요긴한 일이다. 경험이라 함은 제 몸이 지내보아서 어떠한 것은 이롭고 어떠한 것은 해로우며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언짢더라 함을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많이 얻어서 그 이

19 위의 책, 1쪽.

20 《서울신문》, 1947년 12월 20일.

롭고 좋은 것을 쫓이며 해롭고 언짢은 것을 비키는 가운데 사람의 생활이 완전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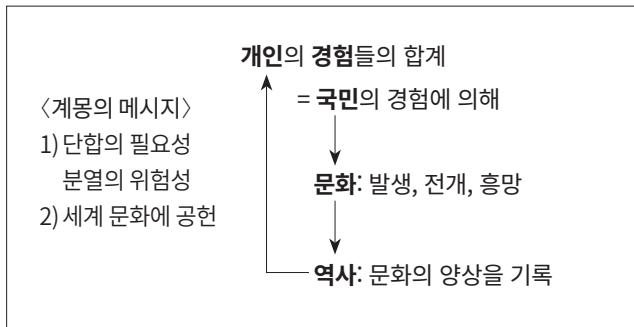
한 사람의 생활에서와 한가지로 국민의 생활에 있어서도 경험이 크게 소중하다. [...] 그전부터의 이러한 경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훌륭한 국민 노릇을 하게 하고 나라로 하여금 빛난 명예를 가지게 하려는 것이 국사 공부의 목적이다.

또 국민이 생활하여 나가는 동안에 살림살이를 편리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할 양으로 애를 써서 갖가지의 새 법과 새 학문과 새 기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갈수록 많아져 내려오니 이러한 슬기와 솜씨를 한통 틀어서 말하려 하면 이 것을 문화(文化)라고 이른다. 역사는 한편에 있어서 어느 국민이 문화를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가, 또 그 국민의 문화가 언제 어떠하였는가, 또 그 문화가 빛났을 때에는 무슨 까닭에 그러했고 시들었을 때에는 무슨 까닭에 그러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글빨이다.²¹

최남선은 역사란 국민 생활에서 만들어진 문화의 양상을 기록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국민 생활은 개개인의 사람들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 과정 속에서 국민 문화가 형성되고 변하고 쇠퇴한다. 역으로 말하면 지난 역사를 배우는 것으로써 국민의 문화와 그 경험을 알게 된다. 자기 나라 역사를 배움으로써 한 개인이 “경험을 많이 얻어서 그 이롭고 좋은 것을 쫓이며 해롭고 언짢은 것을 비키는 가운데 사람의 생활이 완전해지는” 것처럼 국민의 생활, 나아가 자신의 국가가 발전하고 그 문화가 발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 것은 또 다시 역사로 기록되어 후대 사람들에게 선대의 경험이자 흔적으로

21 최남선, 「국사는 왜 배우는가」, 『(성인교육) 국사독본』(서울: 동명사, 1947a), 3~4쪽. []와 밑줄, 강조는 인용자. 이하 인용문 표기 모두 동일하다.

표2-해방 후 최남선의 역사를 통한 계몽 의식



전달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된 자는 “훌륭한 국민 노릇”을 하기 위해 국사, 즉 역사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최남선의 역사를 통한 계몽 의식은 표2와 같은 형태로 설명된다. 역사를 통한 계몽의 과정은 ‘개인의 경험(좋고 나쁨을 생각하여 완전해지는 근거)들의 합계=국민의 경험⇒(문화의 발생과 전개, 쇠퇴 등)← 이것을 기록한 것이 역사←개인은 역사를 통해 국가 민족의 문화를 경험’한다는 순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의할 점은 개인이 경험을 통해 발전하고 완전해지듯이 그 총합인 국민의 경험 그리고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 역시 발전하고 완전해진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인과 국가 문화의 발전을 지향하는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과거의 역사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무엇이 좋았는지를 살펴, 현재와 미래, 나아가 후손에게 발달과 완전을 지향하며 만들어 낸 생활과 문화를 전달해야 한다는 계몽적 상상력이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구성원 개개인이 과거의 역사를 통한 현재와 미래의 문화 발전의 가능성을 이해함으로써 국가도 완전을 지향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최남선의 역사를 통한 계몽의 목표이다.

『국사독본』의 총론에 해당하는 「조선 역사에서 무엇을 배웠나」에서 최남선은 단합과 분열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조선 역사의 특징을 설명한다.

조선 역사가 언제 영광스러웠느냐 하건대, 국민 상하가 잘 단합하여서 전체 생활(全體生活)의 공동 목표(共同目標)로 줄다름질 하던 때에 있었다. 그 반대로 이유는 무엇이든지 국내가 분렬하여서 저의 각각 혼자 옳고 잘났다고 하는 때에는 반드시 파측한 환난이 밖으로부터 덤벼서 버티고 떼미는 두 편이 다 한꺼번에 외적의 두드림 감이 되었었다.²²

앞서 『조선독립운동소사』의 서언에서 확인된 민족운동에서의 단합과 분열의 문제가 다시금 등장한다. 최남선이 조선 역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계몽적 내용은, 해방 직후 조선의 새 국민들이 조선의 역사를 배움으로써 단합의 필요성과 분열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단합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들의 국민 문화와 경험의 기록인 역사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조선 역사의 문제점은 조선 문화가 세계와 인류 문화에 연결되어 그것에 공헌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조선 민족은 자신들의 문화를 만드는데 우수했지만 그 위대한 것이 “골방 속에서 흐지부지해 버린 결점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우리의 의사와 솜씨를 세계적으로 부려서 우리의 은덕이 온 인류의 감사를 받도록 우찌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²³라고 한다. 지금까지 조선 인들은 여러 우수한 문화를 만들었지만, 그 우수한 문화가 항상 국내에만 머물렀기에 그중에 세계에 전달되어 인류 문화 속에 계승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으로 신조선 국민들이 조선의 특수한 문화를 세계와 인류에 공헌하는 보편적인 문화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사독본』과 같은 해에 나온 『국민조선역사』는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했

22 최남선, 「조선 역사에서 무엇을 배웠나」, 위의 책, 64쪽.

23 위의 책, 65쪽.

으며, 내용 면에서도 『국사독본』과 같은 요점만이 아니라 『신판 조선역사』처럼 상세하게 역사적 사실을 적은 역사서이다. 『신판 조선역사』가 해방 직후의 사회적 요구로 식민지 시기의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간행되었던 것에 비해, 『국민조선역사』는 해방 후 1년여의 시간을 거치며 신조선에 필요한 국사를 집필했다는 점에서 『국사독본』과 문제의식을 같이한다. 『국민조선역사』의 「국민조선역사서(序)」에는 『국사독본』에서 확인된 역사를 통한 국민 계몽의 내용이 그대로 확인된다. 최남선은 『국민조선역사』를 쓰면서 다음의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했다.

- ① 王室 及 政治 軍事 本位의 文獻을 國民 文化 本位로 系列(계렬)化한 것,
- ② 朝鮮과 世界가 언제든지 함께 있는 것,
- ③ 朝鮮歷史의 內部에 人類進步의 最高 要素인 獨創力(독창력)과 科學心의 이 누고만 못하지 않게 包藏되어야 있는 것,
- ④ 朝鮮歷史의 行進은 매우 徐遲緩慢(서지완만)하지만 그런대로 生長發展의 途 程(도정)을 밝고 나가는 形相임,
- ⑤ 朝鮮의 傳統은 어쩌한 境遇에든지 혼들려진 일이 업는 것,
- ⑥ 國民生活이 團合統制(단합통제)되는 때에 福利를 엊고 分裂對立(분렬대립)하는 때에 欺辱(치욕)과 罪害(화해)를 맛는 原理를 世界의 어느 歷史보담 朝鮮의 그것이 가장 明瞭하게 證明하고 있는 것 등.²⁴

①에 기준의 왕실이나 정치 등을 중심으로 써 온 역사서 기술의 전통과 달리, 문화를 중심에 두고 글을 쓴 점이 보인다. 문화에 초점을 맞춰서 조선 통

24 최남선, 「국민조선역사서」, 『국민조선역사』(서울: 동명사, 1947b), 3~4쪽. 원문은 원번호가 연결되어 작성되었지만 가독성을 위해 각 번호를 단락으로 구분해서 표기했다. 원문에는 한자 세로쓰기로 적혀 있고 그 옆에 국문으로 독음이 병기되어 있다.

사를 작성하려는 시도는 식민지 말기인 1943년에 간행된 『고사통』에서 이미 시도된 바 있다. 조선의 문화의 생성과 전파를 다룬 『고사통』은 대일본제국의 확장과 그 지역의 확장 속에서 조선 문화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였다.²⁵ 반면에 해방 후에는 일본의 식민지를 벗어난 독립된 신조선의 입장에서 문화를 통한 역사 기술의 중요성을 논한다.

②부터 ⑤는 조선인 나아가 세계 속에서 조선 문화의 가능성은 역사 속에서 보이려고 한 것이다. ④에는 조선의 역사, 즉 조선 문화의 진행은 느리지만 발전 중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⑤에서는 조선의 전통은 한번도 끊어지지 않아 그 명맥이 이어짐을 강조한다.

⑥은 세계사 속에서 단합과 분열을 통한 흥망을 잘 보여 주는 예로 조선 역사를 이야기한다. 그만큼 현 시점에서 조선 민족의 단합이 필요하고 분열이 위험하다는 점을 조선의 역사를 통해 제시한다.

이후 최남선은 1947년 조선을 중심으로 한 역사인 『중등국사』, 조선을 중심으로 한 동양 역사서인 『조선본위 중등동양사』, 동양 역사를 중심으로 한 서양 역사서인 『동양본위 중등서양사』를 이어서 편찬한다. 조선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로 외연을 넓혀 가는 작업이다. 반민특위 관련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1949년 12월에 나온 『세계역사요령』은 앞의 세 가지 교과서를 모아서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 세계로의 외연을 넓혀 가는 작업을 집대성한 형태로 간행된다.

『세계역사요령』에 실린 『중등국사』, 『조선본위 중등동양사』, 『동양본위 중등서양사』에는 각각의 총론과 『세계역사요령』의 서문인 「세계역사요령 머리말」이 실려 있다.²⁶ 「세계역사요령 머리말」에서 최남선은 “내가 수년 이래로

25 류충희, 앞의 글(2024), 48쪽.

26 필자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세계역사요령』에는 국사, 동양사, 서양사의 머리말 부분이 소실되어 있다. 『중등국사』의 머리말에 대해서는 1947년에 『중등국

특히 국민 교육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오[요]령을 얻게 하자는 의도(意圖)를 가지고 우리나라와 동양과 서양의 역사를 따로따로 만들”²⁷었다고 한다. “민족 문화를 위주한 국사와 조선을 중심으로 한 동양사와 동양을 본위로 한 서양사가 한 데 어울려서 일반 국민에게 정확 투철한 세계관(世界觀)을 세”²⁸우는 것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하며, 각각의 조선, 동양, 서양의 역사가 각자가 아니라 조선의 민족 문화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의 형성을 위한 작업이라고 평가한다.

『중등국사』의 머리말에 국민 교육을 위한 역사 교육과 역사학을 위한 역사 기술은 다르다고 지적한다. 국민 교육을 위한 역사 교육은 “歷史로서의 事實의 精確함은 要求하는 同時에 國民精神의 涵養을 爲하여 材料의 取舍와 表現의 方法에 周到 詳審한 注意를 꺼야 할 것”이라고 국민정신의 함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國民教育 上의 朝鮮歷史는 아직 순전한 생무지 땅”²⁹이라며 현재 국사 교육의 현황을 평가한다. 상세한 역사적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독자를 위해 『국민조선역사』를 참고하기를 당부하며 역사를 배우는 대의(大義)에 대해서도 참고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여기서 『국사독본』과 『중등국사』가 일반인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 교육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면, 그것 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조선 역사서로 『국민조선역사』를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중등국사』를 작성하며 여섯 가지 주의한 점을 듣다. 그중 첫 번째가 “材料는 어디까지고 國民生活과 文化發展에 關한 것을 취하여 그 大綱領을 놓치

사』의 것을 가지고 논한다. 『조선본위 중등동양사』와 『동양본위 중등서양사』의 머리말에 관해서는 필자가 두 역사서를 입수하지 못한 관계로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27 최남선, 「세계역사요령 머리말」, 『세계역사요령』(서울: 국문사, 1949), 1쪽.

28 「세계역사요령 머리말」, 위의 책, 1~2쪽.

29 최남선, 「머리말」, 『중등역사』(서울: 동명사, 1947c), 3~4쪽.

지 않으려 하였다”³⁰라고 하며, 구체적인 기술 대상은 국민의 생활과 그것으로 형성된 문화의 발전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는 “過去의 事實에 거울하여 將來의 指標가 어디 있음을 저절로 解得하도록 하였다”라고 하여 과거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를 돌아보는 거울로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중등역사』의 「총론」에서 먼저 조선은 “世界에 있는 가장 오랜 나라”로 지리적 위치의 중요함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半萬年の 傳統”을 끊임없이 이어 온 나라로 이야기한다.³¹ 조선인 역시 민족으로서 매우 우수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로 자신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했다고 장점을 먼저 소개한다. 이어서 조선인의 국민으로서의 결점을 이야기한다. “하지않은 内部의 分裂로써 國家의 운수를 그릇띠렸”라고 하며 이런 우리 역사를 통해 장점을 늘리고 결점을 없앨 “歷史의 事實”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³² 이러한 조선 민족의 장점과 단점은 지리적인 이유로 “全東洋的 內容”과 관련된다. 그렇기에 국제생활에서의 과거를 거울로 삼아 미래를 경계하는 것이 “歷史를 배우는 큰 目的”이라고 강조한다. 조선인은 현재 그 능력만큼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그 理由는 民志가 늘씬하여 바락스럽지 못하고 國力이 가난하여 힘이 벌지 못함에도 있다”라고 하며 이를 해소하여 “참으로 偉大한 文化價値를 建設하여서 우리의 歷史에 새 영광을 더 해야 한다”라고 한다. 『중등역사』의 총론은 해방 이후 최남선이 주장한 역사를 통한 계몽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후의 중등교과서인 『(사회생활과) 우리나라 역사』(1952)와 『국사』(1956)의 총론에 해당하는 「우리의 사명」에도 같은 내용이 실린다.

『세계역사요령』의 동양사의 「총론」에서는 동양이 “중고 이래로 문화의 발

30 위의 책, 3쪽.

31 「총론」, 위의 책, 85쪽.

32 위의 책, 86쪽.

달이 정체(停滯)하고 특히 근대 물질문화(物質文化)의 발달에서 서양의 각국에 뒤떨어졌”³³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 결과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와 그것을 모방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고 지적한다. 이런 동양의 역사 속에서 조선은 언제나 “동양의 민족 성쇠(民族盛衰)와 문화 전개(文化展開)의 한바닥에 있어서 중대한 한 소임을 짊어”였기 때문에 “조선과 및 그 역사는 분명히 전동양적의 존재”라고 동양 역사에서의 조선과 그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³⁴ “조선인으로, 동양인으로, 또 세계의 정의인(正義人)·능력인(能力人)으로 정당한 지위를 확보하고 영광스러운 운명을 개척함에 대한 큰 결심”을 해야 한다며, 조선인들에게 조선을 중심으로 동양사를 생각해야 하며 그 외연을 넓혀나가 세계인으로 살아갈 결심이 필요하다고 한다.

『세계역사요령』의 서양사의 「총론」은 현재 왜 서양인 중심의 세상이 되었는지, 동양인으로서의 조선인에게 그 이유를 찾게 하는 내용이다. 서양과 동양의 역사를 비교하며, 서양인은 “활동성 내지 모험성을 많이 가졌다”는 점, “권리 관념을 굳세게 가졌다”는 점, “과학 정신을 왕성하게 가졌다”는 점이 있다고 설명한다.³⁵ 바꾸어 말하면 동양인 그리고 조선인은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지 못했다. 최남선은 동양인의 중심적 존재인 조선인으로서 “동양인으로서 잃어진 영광에 감개가 깊어야 한다”³⁶라는 점을 환기시킨다. 자랑 할 만한 문화를 가진 조선이 그 문화를 “이불 속의 재주와 골방 안의 동작이던 것을 세계적·인류적의 큰 마당에서 영광스럽게 발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동양을 넘어선 세계적 차원에서 조선 문화가 공헌하고 세계적 문화로 확립될 필요성을 다시금 주장한다.

33 최남선, 동양사 「총론」, 앞의 책(1949), 94쪽.

34 위의 책, 95쪽.

35 서양사 「총론」, 위의 책, 187~188쪽.

36 위의 책, 188쪽.

최남선은 먼저 신조선의 개개인들이 과거의 역사를 배워 스스로의 상황을 자각하기를 바랐다. 또한 이러한 역사를 통한 배움과 자각을 통해 조선 문화가 동양 문화에 공헌하고 나아가 세계 문화에 공헌하는 것으로 세계와 인류의 역사로 기록되기를 꿈꾸었다.

2. 대한민국과 한국전쟁의 역사 기술: 한국전쟁기~1차 교육과정기

한국전쟁 중인 1952년에 나온 『(사회생활과) 우리나라 역사』(이하 『우리나라 역사』)는 처음으로 검정을 거친 중등 교과서이다. 머리말에는 “이 책은 문교부의 새 교수요목에 의거하여 중등학교에 있는 사회생활과의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소용으로 편찬한 것이다”³⁷라고 하며 문교부의 교수요목에 따른 구성과 내용임을 밝혔다. 이제까지의 역사 교과서 기술의 머리말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역사』의 머리말에는 문교부의 교수요목을 따랐다는 것과 교과서의 구성에 대한 설명 및 학습자를 위해 지도 및 그림 등을 넣어 출처를 명확하게 했다는 주의사항만이 적혀 있다. 1956년 4월에 나온 중등 교과서 『국사』에는 머리말이 실려 있지 않다. 검정 과정을 거친 역사서는 기본적으로

표3-해방 후 최남선의 역사서 (2): 한국전쟁기~1차 교육과정기

제목	출판사	출판 연도
『(사회생활과) 우리나라 역사』	민중서관	1952.5
『(사회생활과) 이웃나라 역사』	민중서관	1955
『(사회생활과) 먼나라 역사』	민중서관	1955
『국사』	민중서관	1956.4
『(고등학교 사생과) 고등국사』	사조사	1957.3

³⁷ 최남선, 「머리말」, 『(사회생활과) 우리나라 역사』(서울: 민중서관, 1952).

문교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기준의 최남선 개인의 역사관과 구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역사』의 「총론」과 『국사』의 「우리의 사명」은 『중등국사』의 「총론」과 동일한 내용이다. 하지만 '조선', '조선인'이라는 명칭이 두 교과서 모두 '한국', '한국인'으로 바뀌어 있다. 해방 후 역사를 통해 '조선' 민족을 계몽하고자 한 최남선의 의도는 동일하나, 그 계몽의 대상이 대한민국의 '한국인'으로 변화되었다.

앞서 나온 『중등국사』가 4부 40장 구성이었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 역사』는 4부 62장의 구성으로 바뀌어, 한반도의 지리와 기후 등의 기술 등 내용의 변화가 있다. 특히 각 장의 마지막에 연습문제가 있어 역사 교과서로 학습자에게 내용을 확인시키는 항목이 생겼다.

이제까지의 역사서의 기술과 『우리나라 역사』의 차이 중 하나는 현대사 기술이다. 『중등국사』까지는 현대사 기술이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한반도의 광복으로 끝을 맺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부터 「최근의 정세」라는 장을 새롭게 만들고, '군정(軍政)', '대한민국', '六·二五 사변', '유·엔군의 출동', '전쟁의 결과'라는 항목을 만들어,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한국전쟁의 상황에 대한 기술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해방 후 관련 기술은 이후에 나온 『국사』와 고등학교 교과서인 『(고등학교 사생과) 고등국사』에도 그대로 반영되는데 내용에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국사』는 제1차 교육 과정기인 1956년에 나온 중등학교 검정 역사 교과서이다. 『국사』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와 유사하지만 구성 면에서는 단원을 7개 만들어 각 주제를 더욱 알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만들었다. 『우리나라 역사』의 「최근의 정세」를 「민주대한」으로 바꾸고 단원과 시대로 구분하여, 'I. 우리 겨레의 투쟁, II. 8.15해방과 대한 민국의 수립: (1) 민족의 해방, (2) 대한민국의 성립, III. 6.25사변과 공산진영에 대한 투쟁, IV. 우리

의 사명’으로 세분화하여 적었다.

기준의 역사서 기술에 해당하는 식민지 시기의 내용은 민족운동 부분[‘거족일치(舉族一致)’, ‘삼일운동(三一運動)’, ‘학생운동(學生運動)’]만 적고 민족이 해방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한다. ‘(1) 민족의 해방’ 이후의 기술은 앞의 교과서의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해방 관련 기술과 유사하며 “대한민족은 마음에 없는 분열과 공연한 혼란에 큰 시련을 치렀다”³⁸라고 분단된 현실을 적었다. 이러한 기술은 앞에 나온 『우리나라 역사』에도 “민족 해방이 국토 분열과 짹지어 온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다”와 “이로부터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 가운데 군정이 자축자축 진행되었다”³⁹라고 한반도의 남북 분단의 현실을 명시한다. 『국사』⁴⁰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

두 역사서 모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에 대한 기술은 유사하다. 『우리나라 역사』와 『국사』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게 “우리 정부는 합법적인 유일한 정부로 승인”⁴¹되었다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서의 인정으로 뒷받침한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한편 이북에서는 조선 인민공화국을 표방하고 김일성(金日成)을 주석(主席)이라고 하여 무력침략을 준비해 오더니”⁴²라고 기술한 것을, 『국사』에서는 “한편 북한에서는 김일성(金日成)을 주석으로 하여 괴뢰정권을 세워서 무력 남침을 준비하여 오더니”⁴³라고 적었다. 북한이 무력으로 남한을 침략하려는 의도를 강조한 것은 같지만, 『국사』에서는 “괴뢰정권”, “무력 남침” 등 북한의 비정당성 및 남침을 더욱 강조하는 형태로 기술이 바뀌었다.

38 최남선, 『국사』(서울: 민중서관, 1956), 164쪽.

39 최남선, 앞의 책(1952), 168쪽.

40 최남선, 앞의 책(1956), 165쪽.

41 최남선, 앞의 책(1952), 169쪽; 위의 책, 166쪽.

42 위의 책(1952), 169쪽.

43 최남선, 앞의 책(1956), 166쪽.

한국전쟁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중에 나온 『우리나라 역사』에는 북한과 남침에 대한 평가보다는 전쟁의 양상을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정전 회담이 개시되었다는 기술로 끝이 난다. 그러나 한국전쟁 휴전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나온 『국사』에는 북한의 남침과 관련하여 “공산군은 서울로 들어와서 한강을 건너서 평화스럽던 대한민국을 암흑 속에 쓸어 넣었다”⁴⁴라고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6월 말에 온 거레가 원치 않는 정전회담(停戰會談)이 개시되어”⁴⁵라고 하여 휴전협정이 맺어진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인식을 보인다. 『국사』에서 대한민국의 정당성 및 북한의 남침의 책임 문제 등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바뀐 것이다.

사조사에서 1957년 3월에 발행된 『(고등학교 사생과) 고등국사』(이하 『고등국사』)는 최남선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간행한 역사 교과서이다. 『고등국사』는 앞서 설명한 중등교과서인 『중등국사』, 『우리나라 역사』, 『국사』의 내용, 특히 『국사』의 구성(7 단락 구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형태이다.

식민지 시기부터 해방 후의 상황을 집필한 「민주 대한」은 「독립의 싸움」(소항목: 일본의 식민정책, 삼일운동과 민족의 항쟁), 「해방과 독립」(민족의 해방, 민족의 독립, 6.25사변), 「민족의 사명」(민족의 통일, 민주국가의 건설)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 대한」의 해방 후 공간에 대한 서술에서도 북한, 공산주의, 한국전쟁 관련 기술이 보인다. 「해방과 독립」의 ‘민족의 독립’에서 공산주의자에 대하여 “소련의 앞잡이인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은 신탁통치를 지지하고 민주주의에 대하여 반대하여 반대하여 국내는 점점 혼란하고 복잡하게 될 뿐이었다”⁴⁶라고

44 위의 책, 167~168쪽.

45 위의 책, 168쪽.

46 최남선, 『(고등학교 사생과) 고등국사』(서울: 사조사, 1957), 208쪽.

하며 신탁통치 찬성과 민주주의 반대 등의 이유로 국내를 혼란하게 한 요인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해방과 독립」의 '6.25사변'에서 북한의 성립과 존재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유엔과 대다수의 세계 열방의 승인을 받은 민족 유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주구(走狗)인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金日成)을 중심으로 괴뢰정부(傀儡政府)를 세워서 민족을 분열시키고 북한에서 폭력적인 암흑정치(暗黑政治)를 자행하였다”⁴⁷라고 적고, 『국사』와 유사하게 북한에 대해 민족을 분열시키는 괴뢰정부로 평가한다. 『고등국사』의 각 편의 마지막에는 연습문제가 제시되어 학습자에게 교과내용의 이해를 촉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7편의 질문에는 “6.25사변은 누구의 손에 의하여 이러났나”⁴⁸라고 하여 학습자에게 한국전쟁의 책임 문제와 그 배경에 북한과 김일성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는 생각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반공 이데올로기적 의도가 보인다.

최남선은 「민족의 사명」에서 민족의 통일과 민주 국가의 건설에 대해 논한다. 해방 후 한국전쟁을 치른 한반도의 상황은 하나의 민족과 국가로 민족 국가를 발전시켜 온 한국인에게 민족이 분단된 최대의 시련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통일이야말로 “가장 긴급(緊急)하고 가장 큰 사명(使命)”⁴⁹이다. 민족의 분열은 정치와 경제면에서도 문제이며 “민족의 역사와 민족의 피”를 생각해도 참기 힘든 일이다. “괴뢰정부”가 “암흑정치”를 자행하는 상황 속에서 이북의 동포를 암흑 속에 두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우리는 우선 북진 통일로서 민족의 숙원을 완수하여야 되겠다”⁵⁰라고 북진 통일을 주장한다.

또 하나 현재 한국의 국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고민하여 민주 국가

47 위의 책, 209쪽.

48 위의 책, 211쪽.

49 위의 책, 211쪽.

50 위의 책, 212쪽.

로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여기서 최남선은 과거의 역사를 통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한다.

역사는 고정한 것이 아니라 부단히 전진하고 있느니만큼 우리는 항상 이 역사의 발전에 부응하여 그에 적합한 새로운 국가사회를 형성할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봉건적(封建的) 요소(要素)를 씻어 버리고 세 계사적인 조류에 응하여 민주국가 건설에 노력하여야 될 것이다.⁵¹

역사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 역사에 맞추어 “과거의 봉건적 요소”를 없애고 “세계사적 조류”에 맞추어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 필요가 민주 국가 건설이다. 그런데 민주 국가 건설의 난관이 존재한다. 국내적으로는 봉건적, 비민주적인 세력과 사상의 방해가 있고, 국외적으로는 공산주의 세력과 그 사상의 도전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의 국내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결의와 민주주의 교양이 필요하다.

『고등국사』에는 『우리나라 역사』와 『국사』와는 달리 「머리말」이 실려 있다. 「머리말」에는 최남선의 역사 인식과 이 교과서의 역사 기술의 특징에 대해 말한다. 최남선은 여기서 역사를 “사람이 환경(環境)을 조건으로 하여 사회(社會)를 구성하고 문화(文化)를 건설하며 집단(集團) 생활의 가치를 쌓아가는 과정(過程)의 기록(記錄)”⁵²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인간과 그가 속한 사회집단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것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적 생활체(社會的 生活體)로서 활동, 변천(變遷)한 자취를” 역사가 다루는 대상이라고

51 위의 책, 212쪽.

52 「머리말」, 위의 책, 1쪽.

말한다. 그 중에서도 문화가 “인간생활의 종합적 결과(綜合的 結果)이며 영원한 생명(生命)”⁵³이라고 하며 “국가는 짧지만 문화는 유구(悠久)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⁵⁴라고 역사 기술에서의 문화를 강조한다. 그런 까닭에 제왕, 정치, 전쟁, 재이(災異) 등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인간의 문화에 주목한 역사, 즉 문화사적 측면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사실 이러한 역사 인식은 앞서 살핀 해방 후 새롭게 작성한 『국민조선역사』의 문화사에 주목한 문제의식을 계승한 것이기도 하다. 해방 직후에 가졌던 최남선의 문화를 기술하는 역사라는 인식, 그리고 그런 과거의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의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역사를 새롭게 쓴다는 계몽의 메시지는 만년의 그의 역사 인식에서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III. 한국 사회의 비도덕성과 새로운 민주 대한의 성립 가능성

1. 분열된 한반도와 정치의 비도덕

한국전쟁 휴전 후인 1953년 8월 16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해방 8년과 한국의 장래」에는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을 거친 한국의 상황에 대한 최남선의 인식이 보인다. 최남선은 해방 8년 동안의 한국의 상황을 비상시 상황보다 심각한 “초비상시”로 상정한다. 비상시 상황은 크게 세 가지의 상황이다.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중대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 국내의 내부 분열이 심하여 혼란한 상황, 주위에서 민족 교체가 일어나 그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는 상

53 위의 책, 1쪽.

54 위의 책, 2쪽.

황이다. 광복 후의 한국은 항일이라는 공동 목표가 상실되고, 좌우라는 사상 분열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그 배후에는 “자유주의 대 전체주의”라는 세계적 상극이 존재한다. 한국전쟁은 해방 후 상황의 연속선에서 일어났다. 한국전쟁 후의 상황은 민족, 국가, 사회, 문화, 산업의 총파멸이라는 비참한 상황이다. 세계대전 규모의 전쟁이 한반도라는 좁은 공간에서 일어난 것이다.

최남선은 이런 “초비상시”라는 해방 이후 한국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공동 목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 모두의 공동 목표는 정당하고 건전한 국민생활이다. 이를 위해 반성과 자각, 건전한 국민생활을 통한 생활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최남선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 질문에 대해 그는 민족 분열이 만물의 근본이며 민족 통일이 만복의 원천이라는 자각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한반도의 민족 분단과 분열된 상황이야말로 해방 후 한국 사회에 문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다.

최남선은 해방 후 한반도의 분열이 가져온 한국전쟁과 그것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1953년 9월 6일자 『자유신보』에 실린 「한국 부흥의 열쇠」에서 한국전쟁과 전쟁을 경험한 남북에 대한 최남선의 인식이 보인다. 북한에 대해서 그는 “북한도배”, “적색괴뢰” 등이라고 명명하며 북한 측은 계급투쟁, 세계혁명 등의 여러 구실로 한국전쟁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소련의 지휘와 조종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소련의 조정을 받은 북한이 “이 국토와 인민을 제공해서 세계 대립 세력 항쟁의 희생을 만들었다”라는 반공적인 인식도 확인된다. 남한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다. 남한에 대해 어느 정도 독자성을 인정하지만, 이것 이 자주적인 동기인가라고 반문한다. 남한의 지도자, 위정자, 지배기관이 국난에 임하는 태도에서 “통심질수(痛心疾首: 몹시 마음을 쓰고 골치를 아파함)”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현재 한국에서 중요한 문제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 받는가하는 것이다. 한국의 부흥과 전진이 있는 곳은 “한국인민 전체가 양심을 찾느냐 가지느냐, 또 양심에서 사느냐 아니 사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의 원조, 조약, 양해, 어느 당, 어느 국회의원의 당선 등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괴뢰 세력만 없애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최남선은 무엇보다 자신의 양심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우리의 양심을 돌아보고 개선하지 않는 한 휴전협정에 의한 미국 원조는 “광명이 아니라 암흑이며 소생이 아니라 파멸”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자기 계몽을 통한 현실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최남선의 주장의 배경에는 당시 한국 사회의 혼란한 정치 상황이 있었다. 최남선은 그 근본에 공익보다 사익을 중요시하는 당쟁의 역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1952년 한국전쟁 중의 피난지였던 부산에서 일련의 정치적 사건이 일어났다. 1952년 5월 26일의 부산 정치 파동과 7월 7일에 발췌개헌안 사건이 있었다. 뒤이어 8월 5일에 진행된 제2대 정·부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었다. 같은 시기인 1952년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조선일보》에 총10회에 걸쳐서 최남선은 「경험을 살리는 국민」을 연재한다. 이런 한국의 정치 사건을 목도한 최남선은 이 글에서 조선 역사 속에서의 정당의 문제를 검토하면서 현재의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최남선은 이 글에서 한국 역사에서의 당쟁의 문제점을 듣다. 그것은 공사구분이 없다는 것, 단순한 정권 쟁탈, 내부 분열, 외세를 빌리는 것이다. 특히 조선시대의 당쟁을 문제삼는다. 한국의 역사에서 좋은 당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신라의 화랑도, 고려의 정방 등이 좋은 당의 예이다.⁵⁵ 그런데 그 이후

55 최남선, 「경험을 살리는 국민 1」, 《조선일보》, 1952년 7월 22일.

조선시대의 당쟁은 군주 농락을 통한 정권 유지책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를 위하는 공의가 아닌 사욕에 의한 당쟁뿐이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도 윤리적 한계가 필요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러한 제한도 없었다.

최남선은 당쟁이 국가 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정당과 정쟁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연의 정당이란 국가의 일에서 한사람이나 소수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이 모인 것이다. 본연의 정쟁은 이런 목적을 가진 정당이 당당한 내용으로 공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조선의 당쟁이 정당이나 정쟁이 아닌 이유는 그것이 국가 의식에서 출발하지 않고, 민생 실제에 즉응하지 않고, 말과 글만으로 승패를 정하기 때문이다. 조선의 당쟁은 “관념적 형식적 명분의리적”인 것에 반해 서양의 당쟁은 “구체적 실질적 생활가치적”⁵⁶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조선의 정쟁의 습성은 “지나” 문화를 모방한 것에 비롯된 것이다.⁵⁷ 이러한 조선시대의 정쟁의 문제는 한국 특유의 것이 아니라 중국 송대의 유풍이 전래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최남선은 이렇듯 조선시대의 정쟁 폐해의 원인은 내재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주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당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우리의 역사(경험)를 통해 “위당(偽黨), 위쟁(偽爭), 위정(偽政)”을 배척하고, 경험(역사)을 살려 “진당(眞黨), 진쟁(眞爭), 진정(眞政)”⁵⁸ 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가능성을 피력한다.

조선시대의 당쟁을 들어 현재 정치 및 정쟁을 문제시 삼은 최남선은 당시의 한국 정당 정치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제3대 정·부대통령 선거(1956년 5월 15일)를 앞둔 같은 해 3월 잡지 『새벽』에는 「한국 정당의 이론과 실제」라는 특

⁵⁶ 최남선, 「경험을 살리는 국민 8」, 『조선일보』, 1952년 8월 4일.

⁵⁷ 최남선, 「경험을 살리는 국민 9」, 『조선일보』, 1952년 8월 5일.

⁵⁸ 최남선, 「경험을 살리는 국민 10」, 『조선일보』, 1952년 8월 7일.

집이 실린다. 이 특집에는 여야당 정치인은 물론 대학 교수, 법조인, 언론인 등 사회 각층의 인물들의 글이 실렸다.⁵⁹ 최남선은 이 특집에 「정당무용지변 (政黨無用之辯)」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한국의 정당은 무용하다고 진단한다.

최남선은 오늘날의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1950년대 중반의 한국의 정당 정치는 여당인 자유당을 비롯한 야당인 민주당, 진보당, 민정당 모두 정·부대통령 선거에만 마음이 있지 국민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다. 현재의 모든 정당은 정당 본래의 일에는 “무능력, 무성의”⁶⁰하고 협잡하는 데만 힘을 쏟고 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당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 생활에 유해하다. 현 시점에서 그가 정당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들 정당이 우선 도덕적으로 간생하여 정당 구실을 제대로 하였으면 하는 것 뿐”⁶¹이다. 현 상황을 개선할 방법은 정당인도 사람이니 도덕적인 정치 책임을 느끼며 “빙공영사(憑公營私: 공적인 것을 빙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를 말고 선공후사(先公後私: 먼저 공익을 생각하고 사익을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 정도”⁶²로 염치가 있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정치인에게 충고한다.

그런데 최남선은 현재 정치인에게 도덕적으로 스스로 자각하고 간생하라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인다. “그러므로 주권자인 민중이 그런 무능력자, 협잡

59 당시 특집에 실린 글과 저자는 다음과 같다(계재 순). 1. 서석순, 「한국정당론」, 2. 엄상섭, 「정당과 정치인: 민주주와 한국적 현실」, 3. 이오당, 「야당교육론: 야당을 육성하라」, 4. 최남선, 「정당무용지변」, 5. 장경근, 「자유당 당풍과 태당에 대한 비판」, 6. 조재천, 「민주당이 싸우는 목표」, 7. 이홍근, 「조선민주당의 진로: 이북동포의 정치적 입장과」, 8. 윤길중, 「진보당 조직의 의의와 그 주장」, 9. 손권배, 「민정당 조직의 의의」, 10. 한태연, 「헌법과 정치」, 11. 김중한, 「민주주의와 정치교육」, 12. 박택, 「노동조합과 정치활동」, 13. 주요한, 「홍사단과 정치활동」.

60 최남선, 「政黨無用之辯」, 《새벽》, 1956년 3월호, 23쪽.

61 최남선, 「政黨無用之辯」, 《새벽》, 1956년 3월호, 22~23쪽.

62 최남선, 「政黨無用之辯」, 《새벽》, 1956년 3월호, 23쪽.

배를 모두 투표에서부터 제지 말살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⁶³하다며 국민들의 투표를 통한 바른 정치적 선택만이 방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후진국민의 저민도를 탄식”할 정도로 한국 국민들의 후진성을 지적한다. 특히 대다수의 유권자인 시골 사람들이 금전과 권력에 의해 자유로운 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 출신 자제를 대학으로 보내 각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한다.

해방 후 남북으로 분열된 1950년대 중반의 한국 사회는 위정자들의 부패와 사의 추구라는 비도덕성이 뿌리 깊게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한국 국민들의 올바른 도덕성과 의식에 의한 정치적 선택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남선의 판단으로는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식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성숙하고 도덕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2. 한국 사회의 비도덕성과 도의(道義) 운동을 통한 계몽

최남선에 따르면, 해방 후 한국 정치가의 사의 추구는 한국 사회의 부도덕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봉범은 풍속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한국전쟁 후 새로운 도덕의 표준을 성립하고자 하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1950년대 한국 사회를 주목한다.⁶⁴ 1954년에 발표된 정비석의 『자유부인』이 당시 한국 사회에서 일으킨 관심과 반향이 상징하듯, 한국전쟁 이후의 한국 사회의 재건 과정에서 보이는 남녀 관계와 풍기문란과 관련된 문제 등이 당시 각계에서 지적된다. 이러한 1950년대의 일견 혼란하게 보이는 풍속의 양상은 기존의 사회 구성원들의 도덕적 가치가 재구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도덕적 기준을

⁶³ 최남선, 「政黨無用之辯」, 《새벽》, 1956년 3월호, 23쪽.

⁶⁴ 이봉범, 『전향, 순수 전후, 참여: 대한민국 문학의 형성과 매체』(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3), 219~265쪽.

둘러싼 경쟁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혼란함이기도 하다. 도의 교육으로 대표되는 국가적 차원에서 주창된 계몽 활동과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개인적 욕구들의 충돌의 양상이기도 하다.

최남선은 해방 후 한국 사회의 비도덕성을 언급하고 계몽하는 입장에 있었다. 그는 흥사단과 관련하며 당시 흥사단의 기관지인 《새벽》의 창간호 [1954년 6월 창간. 창간기념호(1954년 9월)]에 내용을 다소 고쳐 재수록]에 「진실(眞實)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사회의 진실정신의 회복을 주장한다. 최남선은 안창호와 함께 활동한 청년학우회(1909~1910)의 근본정신을 되짚는다. 청년학우회의 근본정신은 “진실한 민족의 혼의 자각으로서 진실한 독립 국가를 찾자는 것”⁶⁵이었다. 안창호가 말보다는 행동을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라고 주장한 무실역행(務實力行) 정신을 강조한다. 안창호의 무실역행을 최남선은 “거짓말 말자”⁶⁶라고 요약한다. 우리가 “거짓말 안하는 인간”, “거짓말 안하는 민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분단된 상황 속에서 정부나 사회의 지도자들은 모두 거짓말만 하고, 한국 사회에는 거짓이 횡행한다. 소련이든 미국이든 한반도의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우리들의 민족적 자각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외세에 대한 기대보다 자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남선에게 민족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이며 변화 가능한 것이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생긴 것으로, 상대 집단을 의식하는 대립 의식에서 생성되었다.⁶⁷ 그렇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어느 민족이나 국민은 발전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망하지 못한 나라”⁶⁸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

65 최남선, 「진실정신」, 《새벽》, 1954년 6월호(창간호), 1~2쪽.

66 최남선, 「진실정신」, 《새벽》, 1954년 6월호(창간호), 3쪽.

67 최남선, 「진실정신」, 《새벽》, 1954년 6월호(창간호), 13쪽.

68 최남선, 「진실정신」, 《새벽》, 1954년 6월호(창간호), 14쪽.

사회 생활에서 변화와 혁신이 없었다. 한국의 역사에서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한 후 고려, 조선에 대한 나라의 양도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고 나라가 망하거나 변화된 적은 없었다. 그것이 현재 한국에 이어져 진보와 혁신이 없고 침체와 퇴보만이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최남선은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진실정신의 회복이 필수라고 말한다. “한국의 재건을 위하여는 반공투쟁도 필요하고 태평양 건너서 오는 물자도 필요하지마는, 무엇보다도 근본되는 것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양심을 회복한 진실정신만이 한국을 구하고, 무궁한 운명을 개척하리라고 생각한다”⁶⁹라고 한다. 미국의 원조, 반공주의를 우선하는 것보다도, 한국인 스스로가 진실정신을 회복하여 자력으로 한국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진실정신」을 발표한 이듬해이자 해방 10주년이 되는 1955년부터 최남선은 한국 사회의 도의를 함양하는 계몽 운동을 촉구하는 글을 《한국일보》에 연이어 발표한다. 1955년 1월 1일자 《한국일보》에 게재한 「광명(光明)한 한국으로: 도의(道義) 작흥(作興)의 일대(一大) 운동 전개」에서 광명한 한국을 위한 도의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현재 한국인의 과업은 조국 통일, 민족 회복이지만 현실은 암담하다. 한국은 죽음의 심연으로 돌진하는 광인들이 사는 곳이다. 현재 한국과 한국인을 이렇게 만든 이유로는 표면적으로는 정치의 부패와 생활의 빈곤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로는 양심의 마비와 도의의 퇴폐가 있다. 최남선은 양심과 도의를 회복하고 작흥하는 것만이 한국과 한국인이 유일하게 살길이라고 하며 “광명의 한국을 가져오는 유일한 힘”이라고 단언한다.

최남선은 3월 1일자 《한국일보》에 「삼일운동의 윤리성: 무한한 진취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쓴 독립선언서의 윤리적 특징을 논한다. 세상에서

69 최남선, 「진실정신」, 《새벽》, 1954년 6월호(창간호), 6쪽.

는 3.1운동을 정치운동으로 평가하지만 그 자신은 윤리운동이라고 여긴다고 한다. 당시 그는 독립선언서를 통해 한민족이 즉시 독립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독립선언서가 전면을 통하여 양심의 발단을 강조하고 양심과 함께 진리도 현현(顯現)함을 주장한 것”이며 “삼일운동은 처음부터 미완성 운동이 약속된 것”이라고 한다. 3.1운동이 “미완성 운동”이기에 “그것은 더욱 윤리의 선을 따라서 행동의 시사를 주”는 것이어서 그 윤리성을 확인할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3.1운동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조선 독립은 “조선 민족의 완전한 근대화와 역사적 자각으로써 세계문화의 대조류에 참가함을 의미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3.1운동이 가지는 “윤리성”, “양심성”, “전진성”은 현재 “우리 민족 또 국민이 두고두고 깊이 성찰함을 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성립은 토지, 인구, 권력으로 이야기되지만 자신은 “양심, 윤리, 실덕(實德)”이야말로 진정한 요소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은 “양심 없고 윤리 없고 실덕 없는 나라”이기에 37년 전 선언서를 쓸 때를 돌아켜보며 뜨거운 눈물을 금할 수 없다고 마무리를 짓는다. 최남선은 조선 민족의 윤리성을 함양해야 할 “미완성 운동”으로 3.1운동의 정신을 위치시키고, 그것을 현재의 도의가 부재하는 한국 상황과 결부해 설명한다.

1955년 4월 9일자 《한국일보》의 「도덕동맹을 제창함」에서 최남선은 현재 우리에게 망각된 것이 도덕이라고 한다. 한국을 구제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군사, 경제, 외국의 원조 등을 듣다. 해방 후의 “아메리칸이즘”에 의해 부도덕이 팽배해졌다. 식민지 시기에 도덕적 위기를 겪고 해방 후에는 “아메리칸이즘”이 한국 사회를 침투하여 도덕적인 파괴가 심각해졌다. 최남선은 “아메리칸이즘”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졌는가를 문제삼는다. 미국에서는 “아메리칸이즘”이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것이어서 여러 문제점이 억제되었지만, 한국에서는 “황금만능, 물

질편중, 위력전상(威力專尙) 등”으로 바뀌어 피해만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미국의 원조나 미국적인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도덕의 회복에 있다. “도덕은 국가의 원기요, 사회의 기초요, 인생활동의 근본임이 소연(昭然)한 사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그리고 민족 부흥기 19세기 독일 국민들이 스스로 도덕 개선을 주장하며 만들었던 도덕동맹을 통해 스스로를 독려하고 독일을 강한 나라로 만든 역사를 참고하여, 한국 사회에서도 정신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해 11월 17일에 최남선은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아 가톨릭교도가 된다. 12월 17일과 18일에 걸쳐 『경향신문』에 게재한 「인생과 종교: 나는 왜 가톨릭에로 전향하였는가」에서 자신의 종교관과 한국 사회 및 한민족의 현재를 관련지어 개종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글은 최남선이 해방 후부터 1955년까지 한국 사회에 대해 가졌던 감회와 1955년에 주장한 도의 운동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

최남선은 종교의 궁극의 목표로 “인생의 구제”를 이야기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생의 구제란 “우주의 대생명과 자기의 소생명이 일(一)이요, 이(二) 아닌 자각에서, 자기의 인격을 통일하여 나가는 생활 태도의 확립”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은 세상의 무한함에 비해 자신의 생명이 약하고 유한함을 깨달음으로써 무한한 권능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이 세상과 비교하여 유한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자각과 무한한 권능에 의존하는 마음이 합쳐진 것이 “인간의 향상심”이다. 종교 중에는 이러한 인간의 향상심을 일으키는 종교, 즉 인간을 구제하는 힘이 있는 종교와 그런 구제력이 없는 종교가 존재한다. 구제력이 없는 종교는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최남선은 현재 한국에 필요한 종교는 구제력을 가진 종교라고 한다.

1955년 말 현재 한국은 여전히 “부패”, “무기력”, “혼란”, “무절제”⁷⁰로 가득한 곳이다. 이러한 “아한(我韓)”을 되살리고 진통할 수 있는 구제력을 가진 종교가 필요하다. 한민족의 생활정신사에서는 화랑도 정신이 있었고, 조선시대 말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의 순교정신이 있었다. 화랑도는 국가를 통일할 때 그 성과를 보였다. 기독교 정신은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공헌을 해 왔지만 아직은 미지수인 것이 많다. 최남선은 인류 역사, 특히 서양의 역사를 살펴보면 현재 서양의 물질문화는 그리스시대부터의 철학과 과학, 중세기의 문예부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특히 그 기반을 이룬 것으로 “이천년 가까운 가톨릭의 정대 강고한 지지력이 불가사의한 위신력(威神力)”⁷¹이 존재했다고 이야기한다. 가톨릭은 “개인의 구령(救靈)으로나 민족의 부활지도력으로나 아무 부족함이 없지 않지 아니할까. 나는 이에 유교, 불교, 모든 교문에 광구(廣求)하여 얻지 못하던 바를 이제 가톨릭에서 얻은 느낌이 났노라”⁷²라고 개인과 민족을 구제하는 종교가 가톨릭이라 생각하여 개종했다고 한다.

최남선은 앞선 《한국일보》의 기사에서 19세기 초기 독일의 도덕동맹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몇 천 년 동안 서양의 정신적 기반을 지탱해 온 가톨릭을 믿는 것이다. 가톨릭을 통해 새로운 한국이 구제되는 것, 즉 한국의 개인과 그 합인 국민이 향상심을 가지게 되어 새로운 민주한국이 수립될 수 있다고 최남선은 판단한 것이다.

70 최남선, 「인생과 종교: 나는 왜 가톨릭에로 전향하였는가 상」, 《경향신문》, 1955년 12월 17일.

71 최남선, 「인생과 종교: 나는 왜 가톨릭에로 전향하였는가 하」, 《경향신문》, 1955년 12월 18일.

IV. 맷음말

해방 후부터 시작된 최남선의 역사를 통한 계몽의 시도는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그 개념이 구체화되고 변화된다. 해방 직후 최남선은 『쉽고 빠른 조선역사』를 비롯한 역사서를 통해 신조선의 교양으로서의 역사 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의 경험이 모여 한 나라의 문화가 되고 이것을 기록한 역사를 배우는 것이 참된 국민이 되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국사 독본』과 『국민조선역사』에서는 문화사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고, 조선 문화가 세계와 인류 문화에 공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중등국사』와 『세계역사요령』에서는 조선에서 동양, 세계로 외연을 넓히며 조선의 민족 문화를 토대로 한 세계관 형성을 지향했다. 한국전쟁기와 그 이후의 검정교과서인 『우리나라 역사』, 『국사』, 『고등국사』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북한의 남침 책임을 부각하는 반공이데올로기가 강화된다. 최남선의 역사를 통한 계몽의 시도와 논리는 만년까지도 작동한다.

최남선의 역사를 통한 계몽의 시도는 그가 살았던 한반도의 상황, 특히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친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해방 후 최남선은 한국 사회를 초비상시로 규정하고 민족 분열과 비도덕성에 의한 정치의 부패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남북 모두를 비판하며 특히 남한 정치인들의 사이의 추구와 무책임을 지적했다. 당시의 한국 사회는 국민의 양심과 도덕의 회복이 없이는 부흥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조선시대 당쟁의 폐해를 역사적 교훈으로 들어 당시 정당의 무능과 부패를 비판하며 위당, 위정이 아닌 진당, 진정의 실현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도덕적 정치 선택을 촉구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신한국 국민의 현실은 후진적이고 비도덕적 이었다. 1950년대 중반에 도의 운동을 제창하며 거짓과 무책임을 극복하고 도의와 도덕을 국민적 기반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3.1운동을 미완성의 윤

리적 과제로 해석하며 도덕동맹을 통한 사회 개혁을 주장했다. 1955년 가톨릭으로 개종한 최남선은 서양 문화의 정신적 토대를 지탱해온 가톨릭의 구제력을 통해 개인과 민족 모두가 향상심을 회복하여 새로운 민주 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자신의 개종의 이유를 밝혔다.

이 글은 주로 최남선의 해방 후 역사서와 당대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해방 후 역사서는 최남선을 비롯하여 여러 역사서가 간행되었다. 예를 들어, 진단학회가 편찬한 『국사교본』(1946), 류홍렬, 이병도 등의 당시 한국사 연구자가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역사 교과서가 편찬되었다. 앞으로 최남선의 역사서와 같은 시기에 간행된 다른 역사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최남선의 역사 인식과 기술의 특징을, 당시 역사 교육과 연구라는 자장 속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정교과서 시행으로 인해 문교부(정부)가 지향하는 역사 인식과 최남선의 역사 교과서의 서술 방식의 변화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방 이후의 최남선의 사상 및 활동과 관련된 남은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의 작업으로 남겨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논저

이영화,『최남선의 역사학』, 서울: 경인문화사, 2003.

이봉범,『전향, 순수 전후, 참여: 대한민국 문학의 형성과 매체』,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3.

류시현,「해방 후 최남선의 활동과 그에 관한 ‘기억’」,『한국사학보』27, 2007, 145~173쪽.

류시현,『최남선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2009.

류시현,『최남선 평전』, 서울: 한겨레출판, 2011.

류시현,「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최남선의 ‘조선 상식’ 정리와 ‘한국학’의 대중화」,『대동문화 연구』114, 2021, 517~539쪽.

류시현,「해방 후 최남선의 중등 역사 교과서의 집필과 세계사 인식:『세계역사요령』(1949)을 중심으로」,『공존의 인간학』9, 2023, 219~252쪽.

류충희,「해방 전후 최남선의 역사 인식과 불함문화론」,『코기토』103, 2024, 35~68쪽.

최남선,『쉽고 빠른 조선역사』, 서울: 동명사, 1946a.

최남선,『신판 조선역사』, 서울: 동명사, 1946b.

최남선,『조선독립운동소사』, 서울: 동명사, 1946c.

최남선,『(성인교육) 국사독본』, 서울: 동명사, 1947a.

최남선,『국민조선역사』, 서울: 동명사, 1947b.

최남선,『중등역사』, 서울: 동명사, 1947c.

최남선,『세계역사요령』, 서울: 국문사, 1949.

최남선,『(사회생활과) 우리나라 역사』, 서울: 민중서관, 1952.

최남선,『국사』, 서울: 민중서관, 1956.

최남선,『(고등학교 사생과) 고등국사』, 대구: 사조사, 1957.

2. 기타

최남선,「국조모독설은 非本意: 自列書」,《자유신문》, 1949년 3월 9~10일.

최남선,「경험을 살리는 국민 1~10」,《조선일보》, 1952년 7월 22일~8월 7일.

최남선,「해방 8년과 한국의 장래」,《서울신문》, 1953년 8월 16일.

최남선,「한국 부흥의 열쇠」,《자유신보》, 1953년 9월 6일.

최남선, 「진실정신」, 《새벽》, 1954년 6월호(창간호), 1~15쪽.

최남선, 「閑談」, 《새벽》, 1954년 12월호, 41쪽.

최남선, 「광명한 한국으로: 도의 작풍의 일대 운동 전개」, 《한국일보》, 1955년 1월 1일.

최남선, 「삼일운동의 윤리성: 무한한 진취정신」, 《한국일보》, 1955년 3월 1일.

최남선, 「도덕동맹을 제창함」, 《한국일보》, 1955년 4월 9일.

최남선, 「인생과 종교: 나는 왜 가톨릭으로 전향하였는가」, 《경향신문》, 1955년 12월 17~18일.

최남선, 「政黨無用之辯」, 《새벽》, 1956년 3월호, 22~23쪽.

최보식, 「‘육당 최남선’의 장손 최학주씨」, 《조선일보》, 2015년 5월 25일.

「교과서와 풍기취체 등 학제최후결정 昨日 중등교장회를 개최」, 《조선일보》, 1948년 10월 12일.

《경향신문》. 《새벽》. 《서울신문》. 《조선일보》. 《자유신문》. 《자유신보》. 《한국일보》.

국문초록

이 글은 해방 후 최남선의 역사서와 논설을 검토하여 그의 역사를 통한 계몽의 논리와 1950년대 당대 인식을 살펴본 것이다.

해방 후 최남선은 개인 경험의 축적이 국민 문화의 발전과 관련되며 그러한 문화를 기록한 것이 역사는 관점을 가지고 신조선/한국의 국민 교양으로서의 국사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조선의 역사를 통해 단합과 분열의 교훈을 자각하고 신조선/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해방 직후에는 『쉽고 빠른 조선역사』, 『국민조선역사』, 『세계역사요령』 등을 통해 문화사 중심의 역사 기술을 시도하며 국민 교양으로서 국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전쟁기와 그 이후의 검정 교과서인 『우리나라 역사』, 『국사』, 『고등국사』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북한의 남침의 책임을 강조하는 서술이 강화되었다.

최남선은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막심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도덕성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한국 사회를 정치적으로 부패한 공간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이를 한국 사회의 비도덕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의 개개인이 도의 운동과 구제력이 있는 종교 등을 통해 스스로 노력하여 한국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만이 민주 대한의 성립과 부흥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당대 인식을 바탕으로 한 최남선의 역사를 통한 계몽과 도덕성 회복의 주장은 해방 이후부터 말년까지의 사상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투고일 2025. 9. 24.

심사일 2025. 10. 31.

제재 확정일 2025. 12. 2.

주제어(keywords) 최남선(Ch'oe Nam-sŏn), 역사 계몽(historical enlightenment), 역사교과서(history textbook), 한국전쟁(the Korean War), 도의 운동(moral movement)

Abstract

Ch'oe Nam-sǒn's Contemporary Perceptions and the Logic of Enlightenment after Korea's Liberation

Ryu, Chung-hee

This study examines Ch'oe Nam-sǒn's historical writings and essays after Korea's Liberation, focusing on his logic of enlightenment through history and his contemporary perceptions in the 1950s.

After Liberation, Ch'oe Nam-sǒn argued that the accumulation of individual experiences constituted the foundation of national culture, and that history, as the record of such culture, was indispensable for cultivating the civic consciousness of a new Korean nation. He emphasized the lessons of unity and division drawn from Korean history and stressed that Korean culture of Korea should contribute to the world.

In the immediate post-liberation years, Ch'oe Nam-sǒn's works such as *A Simple and Quick History of Joseon*, *National History of Joseon*, and *Outline of World History* reflected his attempt to present history from a cultural perspective and to underscore its role in civic education. In contrast,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reafter, his state-approved textbooks such as *Our Country's History*, *National History*, and *Advanced National History* highlighted the legitimac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ttributed responsibility for the war to North Korea.

Confronted with the devastation of war and the divided peninsula, Ch'oe Nam-sǒn contended that moral restoration was essential. He perceived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s politically corrupt, rooted in its lack of morality, and insisted that only through the recovery of moral values—promoted by ethical movements and supported by religions with genuine salvific power—could a democratic Korea be rebuilt and revitalized. His advocacy of enlightenment through history and the restoration of morality, grounded in his contemporary perceptions, constitutes a defining characteristic of his thought from Liberation to his final years.